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올해 1분기 미 경제 성장, 연율로 0.2% 감소
- 미 신규 주간 실업청구건 상승...24만 건
- 연준, 이달 회의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예상했다

### [미국 금융]

- 달러 반등 일시적...법원의 '관세 중단' 판결로
- 증시, 기술주로 상승세...GDP약세가 금리 인하 가능성 키워

### [무역전쟁]

- 미 관세 불법 판결에도 불구 무역전쟁 끝나지 않았다
- 미 관세 부과 불법 판결의 의미는?
- 미국, 중국에 항공기와 반도체 기술 수출 중단
- 유엔, "무역전쟁으로 올해 700만 개 새 일자리 사라진다"

### [트럼프 비자 정책]

- 미국,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UA, 제트블루, 로열티 포인트 사용 등 협력
- Best Buy, 관세 문제로 가이던스 축소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Economy Shrinks 0.2% on Weaker Spending, Larger Trade Impact

올해 1분기 미 경제 성장, 연율로 0.2% 감소

- 올해 들어 미 경제가 소비 약세와 예상보다 큰 무역 여파로 위축됐다.
- 오늘 목요일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미 경제 성장이 연율로 0.2% 감소했다. 당초 보고된 수치는 마이너스 0.3%였다.
- 미 경제 주요 성장 동력인 소비 지출은 당초 성장 예상치인 1.8%보다 낮은 1.2% 성장했다.
-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순 수출은 전체 GDP를 5%나 줄였다.
- 그러나 이 같은 GDP는 당초 추정치보다 다소 낮은 수치로 비즈니스 환경이 다소 강한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 WSJ: U.S. Jobless Claims Rose Last Week

## 미 신규 주간 실업청구건 상승...24만 건

- 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는 당초 예상치보다 높은 24만 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 계속 실업 수당을 받는 전체 청구 건수는 1백92만 건으로 202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 한편, 올해 초반 시행된 관세 조치가 노동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했으나 큰 일자리 손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WSJ 기사

## WSJ: The Fed Forecasts Stagflation 연준, 이달 회의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예상했다

- 연준의 이달 열린 정례 회의에서 관세 조치로 가격 상승과 높은 인플레 리스크를 우려했다고 의사록은 밝혔다.
- 연준 관리들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신중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대응 방법에 같은 의견을 보였다.
- 파월 연준의장이 "상황 판단을 기다리는데 따르는 비용은 낮다"고 발언한 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며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Dollar Bounce Is Short-Lived After Trump Tariffs Move Into Limbo

#### 달러 반등 일시적...법원의 '관세 중단' 판결로

- 트럼프 대부분의 관세 조치들이 불법적이라고 미 국제 무역법원이 결정하면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달러의 장기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 달러는 최근 1주일 이상 상승했으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데 트레이더들은 글로벌 무역 분쟁의 복잡성과 이에 대한 미 경제 여파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Stocks Get Tech Lift as Weak GDP Bolsters Fed Bets 증시, 기술주로 상승세...GDP 약세가 금리 인하 가능성 키워

- 어제 엔비디아의 강한 실적으로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증시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위축되었다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축으로 인해 연준이 올해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로 국채 가격도 상승했다.
- 투자자들은 미 국제무역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상황의 여파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S&P 500과 나스닥은 0.5%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3 베이시스 포인트 줄어든 3.95%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도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약세로 거래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무역전쟁]

#### **WSJ: Tariff Ruling Is a Setback for Trump but Doesn't End Trade War 미 관세 불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 끝나지 않았다**

- 미 무역법원은 트럼프의 지난 4월 2일 부과한 관세 조치들이 불법이라고 판결해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있다.
- 물론 미 행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할 다른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한편, 이번 법원 판결로 미국과 협상에 직면한 국가들이 양보할 입장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 협상들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 **WSJ: Trump Tariffs Blocked by Federal Court: What You Need to Know 미 관세 부과 불법 판결의 의미는?**

- 판결 내용: 미 국제무역 법원은 트럼프가 '국제 긴급경제권 헌법(IEEPA)'하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 판결 적용 관세 범위: 판결이 적용되는 관세는 마약 펜타닐 관련 대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외에 10% 보편 관세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별 상호 관세
- 적용되지 않는 관세: IEEPA가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는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
- 항소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변호사들의 항소가 예상되며 항소법원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 행정부의 대안: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사용했던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섹션 301을 사용을 검토할 것이다. 이는 IEEPA보다 탄탄할 법적 근거일 것으로 알려졌다.
- 글로벌 관세 협상 전망: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협상 국가들이 이같은 판결을 예상했을 수 있다. 앞으로 관세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WSJ 기사

#### **NYT: U.S. Pauses Exports of Airplane and Semiconductor Technology to China 미국, 중국에 항공기와 반도체 기술 수출 중단**

-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트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 물질 및 기계 관련 제품을 포함한 핵심 기술의 일부 판매를 중단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미국으로의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미국 기업의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 워싱턴과 베이징은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심 경제 요소에 대해 우위를 점하려는 상황에서 양국의 갈등으로 세계 경제 대국들의 공급망 전쟁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 중요한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항공기, 로봇, 자동차, 반도체 등과 같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제조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롯하여 무역 갈등을 끝내기 위한 협상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NYT 기사

### **CNNBusiness: 7 million new jobs will evaporate this year because of trade war, UN predicts**

**유엔, "무역전쟁으로 올해 700만 개 새 일자리 사라진다"**

- 유엔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수백만 개의 잠재적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무역 혼란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5,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는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700만 개 적은 수치이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점을 들어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을 기존 3.2%에서 2.8%로 하향 조정하였다.
- ILO는 또한 71개국에서 약 8,400만 개의 일자리가 미국 소비 수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관세의 영향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소비와 투자 수요에 묶여 있는 근로자들은 이제 관세 인상과 미래 무역 조치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소득 손실 위험이 커졌다"라고 밝혔다.

CNNBusiness 기사

### **[트럼프 비자 정책]**

#### **WSJ: U.S. to Revoke Visas of Chinese Students**

**미국,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 국무부가 미국 대학에 유학생들의 유학을 제한하는 가운데 국무방관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유학 허용 비자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 이번 조치에는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중요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과 홍콩발 비자 신청 기준을 개정할 것임을 알렸다.
- 두 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며 중국 학생들의 신분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부는 이미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여러 외국인 유학생을 추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United, JetBlue Deal Lets Travelers Use Loyalty Points and Seats Across Carriers

### UA, 제트블루, 로열티 포인트 사용 등 협력

- 유나이티드 항공과 제트블루 항공은 여행객이 로열티 포인트를 사용하고 두 항공사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 이번 제휴로 두 항공사의 뉴욕 지역 운항 서비스를 협력하기로 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JFK 공항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고, 제트블루 항공은 뉴어크 리버티 공항 허브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일부 항공편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계약은 항공 교통 관제 문제로 뉴욕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뉴어크 공항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JFK 공항에 항공편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나이티드의 바람을 실현한 것이다. 제트블루 항공 또한 유나이티드 항공의 뉴어크발 항공편 중 매일 8회 운항 편을 유리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Bloomberg 기사

## WSJ: Best Buy Cuts Guidance as Tariffs Loom

### Best Buy, 관세 문제로 가이던스 축소

- Best Buy는 세계 무역 전쟁의 잠재적인 영향으로 인해 올해 매출과 이익 예측치를 낮췄다.
- 전자제품 소매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세계 무역 전쟁의 결과로 올해 동일 매출이 감소할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Best Buy는 이전 수입에 의존하는 공급업체가 더 높은 비용을 자사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이미 낮은 마진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이 인상되어 수요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 Best Buy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전환하고, 협력업체들과 비용 협상을 진행하며, 제품 재고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베스트바이의 제품 가격 인상률은 현재 관세율보다 낮았다.
- 이번 회계연도 매출을 411억 달러에서 419억 달러로 예상다. 이는 이전의 예측치에서 하향 조정한 수치이며, 동일 매출이 2% 증가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최대 1% 상승하거나 최대 1%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WSJ 기사

## [보고서]

### 2.00%p 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차...연준은 언제까지 동결?

연준 관망 모드 속 한미 금리차 확대 우려

미국 금리 인하는 '9월에야' 전망도

한국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대해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